

켜켜이 쌓아온 노화백 그림 기록, 시대의 흔적을 담다

원로 작가 강연균, 6년 만에 예술공간 집 초대전

5천여점 드로잉 중 500여점 선별...내달 19일까지 1부, 5월까지 2부 전시 강렬한 에너지로 일상서 길어올린 30여년 화업, 시대와 공감하고 소통하다

그림일기처럼 매일같이 담아온 노작가의 드로잉은 단조로워 보이면서도 강렬한 에너지를 내뿜고 있다. 고향집과 곁의 가족, 자연 풍경은

물론 사회적인 비극과 정치에 대한 관심까지. 다양한 소재를 다루면서도, 그에게 중요한 것은 새로운 형태의 그림이다. 남이 보지 못한 것, 새롭게 길어 올린 형상이야말로 자신만의 창작이 된다는 것이다.

지역의 대표 원로 작가인 강연균 화백의 개인전이 예술공간 집에서 6년 만에 열려 눈길을 끈다. 이번 전시는 예술공간 집이 기획한 초대전으로, 2020년 같은 공간에서 개인전을 연 이후 다시 마련된 전시다.

특히 1988년부터 현재까지 30여년 간 이어온 강 화백의 드로잉 5천여점 가운데 500여점을 선별해 공개하는 이번 전시는 작가의 방대한 작업 세계를 본격적으로 조망한다.

전시는 1부와 2부로 나뉜다. 지난 19일 열린 간담회에서는 1부 '강연균: 남마다의 궤적들'을 중심으로 전시 의도와 구성이 소개됐다.

문화영 예술공간 집 대표는 전시 준비 과정에 대해 "처음에는 소규모 전시를 생각했지만, 드로잉북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예상보다 훨씬 방대한 작업이 확인됐다"며 "작품 수량과 연도를 모두 정리하고, 하나하나 촬영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과정부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강연균: 남마다의 궤적들' 전시 전경.

문 대표는 "이 작업들을 단순히 일부 선별해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작가의 세계 안으로 들어가는 듯한 전시로 구성하고 싶었다"며 "작품을 계속 들여다보면서 자연스럽게 주제별 흐름이 보였고, 이를 바탕으로 카테고리리를 나누게 됐다"고 밝혔다.

1부 전시는 약 300여점의 드로잉을 중심으로 구성된다. '사회', '인간', '고향과 가족', '풍경', '나무', '형(形)' 등 11개 카테고리리로 구성됐다. 강 화백이 일상 속에서 마주한 장면과 감정, 그리고 시대적 사건들이 축적된 형태도 펼쳐진다. 특히 3·1운동, 코로나 시기, 정치적 사건 등 사회적 장면과 가족·고향·자연을 그린 작품들이 함께 놓이며 개인의 삶과 시대의 흐름이 맞닿는 지점을 드러낸다.

문 대표는 "이미지를 따라가다 보니 자연스

럽게 분류가 이뤄졌고, 작가의 감정과 시선이 그대로 읽혔다"며 "이처럼 방대한 작업이 그동안 제대로 연구되거나 정리되지 않았다는 점도 이번 전시의 중요한 출발점이었다"고 말했다.

전시장 구성은 이러한 흐름을 반영해 사회와 인간을 바라보는 시선, 그리고 가족과 사물, 자연을 향한 시선을 두 축으로 나눠 배치했다. 그중에서도 '형'과 '상념' 영역은 기존의 재현을 넘어 새로운 조형을 탐색한 작업으로, 작가의 창작 실험이 두드러지는 부분이다.

강 화백은 자신의 작업에 대해 외부 평가보다는 지속적인 창작 자체에 의미를 둔 태도를 드러냈다.

그는 "그림은 일상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화가라면 그려야 한다"며 "나는 그냥 나대로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매일의 드로잉이

일기처럼 쌓여 한 작가의 시간과 생각을 보여준다는 점이 이번 전시의 특징이다.

문 대표는 "이번 전시는 단기적인 성과를 기대하는 전시가 아니라, 작가의 작업을 아카이빙하고 재조명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이 작업을 계기로 강연균 화백에 대한 연구와 평가가 이어질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오는 4월19일까지 진행되는 1부 전시 이후, 2부 '강연균: 증언의 궤적들'은 4월24일부터 한달간 이어지며, '하늘과 땅 사이' 시리즈 속작과 함께 1980년 당시 작업된 미공개 작품 등이 공개될 예정이다.

강 화백은 "오랜만에 꺼내보는 작품들에 기억이 새록새록하다"며 "나의 그림과 함께 우리 시대의 정서를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명진 기자



자신의 작품세계에 대해 설명하는 강연균 작가.

'24년 예술 연대'...손영선 화백 '송을진전' 참여

목포에서 활동하며 전국적으로 이름을 알린 손영선(사진) 화백이 울진에서 열리는 '송을진전' (頌蔚珍展) 초대작가로 참여하며 지역 간 예술 교류의 의미를 더하고 있다.

'송을진전'은 '울진의 아름다움을 노래하다'는 뜻을 담은 전시로, 2002년 핵폐기장 유치 논의 속에서 지역의 자연과 가치를 알리기 위해 시작됐다. 2003년 첫 전시 이후 전국 구상 화단이 참여하는 대표적인 기획 전시로 자리 잡았으며, 올해로 24회를 맞았다.

손영선 화백은 초창기부터 이 전시에 참여해 온 작가로, 지역과 지역을 잇는 예술 교류의 상징적 인물로 평가된다. 올해 역시 초대작가로 선정돼 울진을 찾아 전시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지난 7일 울진 죽변항에서는 초대작가와 한국미술협회 울진지부 관계자들이 모여 작품 구상과 전시 계획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전국 작가 45명과 울진 지역 작가 30여명이 참여했으며, 울진의 사계절 풍경을 담기 위한 스케치 일정 등이 협의됐다. 목포의 손영선 화백을 비롯해 광주의 문정호, 이종숙 작가 등 외부 작가들도 함께해 전시의 폭을 넓



혔다. 전시는 가을께 개최될 예정이다.

참여 작가들은 군 단위 지역에서 20년 넘게 전국 화단과 교류하며 전시를 이어온 사례는 드물다며, 예술을 통한 지역 간 교류 확대에 대한 기대를 나타냈다.

홍경표 운영위원장은 "초대작가들과 회원들의 헌신 덕분에 전시가 24년 동안 이어질 수 있었다"며 "울진의 아름다움을 알리고 한국 화단의 의미 있는 기록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최명진 기자

보이지 않는 생명의 흐름, 점과 선으로...

정정임 개인전, 31일까지 목포 성옥기념관 별관갤러리

몸속 혈관에서 발견한 자연 풍경을 점과 선으로 풀어낸 회화 작업이 한자리에 모였다.

서양화가 정정임 작가 개인전 '생명의 지도 - 점과 선 사이에서'가 오는 31일까지 목포 성옥기념관 별관갤러리에서 열린다. 전시에는 '생명의 지도'를 주제로 한 연작 28점이 출품됐다.

작가는 점과 선을 통해 보이지 않는 생명의 구조를 시각화하는 작업을 이어왔다.

화면 위 반복되는 점들은 하나의 장을 이루고, 이를 연결하는 선들은 흐름을 형성하며 생명의 순환과 구조를 드러낸다.

이번 작업은 인체 내부를 들여다보

는 과정에서 출발했다. 작가는 첨단 의료기기를 통해 혈관을 관찰하는 과정에서, 몸속 구조가 자연의 풍경과 닮아 있다는 인상을 받았다고 했다.

혈관의 흐름이 마치 나무의 가지와 뿌리를 연상시켰고, 점과 선으로 이뤄진 하나의 풍경처럼 보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작가는 기존 회화 도구 대신 주사기와 나이프를 활용한 작업 방식을 택했다. 점을 찍고 선을 이어가는 반복적 행위를 통해 생명의 구조를 구축하는 방식이다.

정정임 작가는 "점과 선을 생명의 흐름과 호흡을 기록하는 행위로 바라보며, 작업 과정 자체를 하나의 사유이자 치유의 시간으로 풀어내고 있다"고



'Map of Life'

밝혔다.

/최명진 기자

나왔다!!! 마시는 씨알-렉스 PREMIUM

고객의 성원에 힘입어 간편하게 마실 수 있는 씨알-렉스가 출시되었습니다. 효능·효과는 물지마세요!

주요성분 비수리(야관문), L-아르지닌, 아연, 마카, 복분자, 토사자, 오미자, 사상자, 산수유, 마늘 등



1박스-60,000원

※ 하루 한포면 충분합니다.

NH농협손해보험

생산물 배상책임보험 3억 가입



상품등록 : 제40-1007119호

남자한테 좋은데~

표현하기가~

각 시·군 취급점 모집

© 광주 약국에서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주문 080-374-5046 / 010-3738-8989

보람약품(주) 062)528-6664